



# 정교회주보

제2427호

2023.7.2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 게오르기오스 성당(사진)은 그리스 아테네의 갈라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11세기에 4개의 기둥이 지지하는 돌을 엮은 십자가 형태로 건립되었으며 내부 벽화에는 게오르기오스 성인의 순교 장면이 그려져 있다. 성당은 건축학적으로 균형 잡힌 우아함과 13세기에 제작된 벽화와 조각 장식으로 '아름다운 성당'(Ομορφοκλήσις)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태오 제4주일  
성 유베날리오 예루살렘 총대주교  
(제3조 • 조과 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 주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히브리 9,1~7 ..... (봉) 619  
• 복음경 : 마태오 8,5~13 ..... 11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묵인 자들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삶의 격랑을 극복하는 지혜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개인적인, 가정적인, 민족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허약함, 질병, 결점, 수난 등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면 악마가 다가와서 투쟁은 헛된 것이고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절망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피신하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도록 합시다 :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느님을 기다리리라.”(시편 42,5)

'성서의 메아리' 중에서

# 말씀이신 주님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요**한 복음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요한 1,1-2)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복음사도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이신 그분은 하느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계셨고 인간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교회의 교부들도 성 삼위일체 하느님을 가르칠 때 하느님 아버지는 뜻이요, 하느님 외아들은 말씀이며 하느님 성령은 말씀의 역사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느님 외아들이신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 성령의 역사로 창조되었고, 아버지의 뜻은 주님이신 말씀이 하느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언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럼으로써 계명과 예언이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오셨기에 구약성서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율법의 말씀이 완전히 실현되고 지켜졌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에 있던 이들, 즉 죽은 이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주셨고, 병자들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되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대장이 유대인 원로들을 보내 자신의 소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를 살려주시기를 간청케 했다. 그 백인대장은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선한 일을 많이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그 청을 받아들

여 그의 집으로 가고자 하셨다. 그러자 그는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루가 7,6-7 참조)라며 주님 말씀의 권위와 존엄에 무한한 신뢰를 보였다.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의 겸손함을 보시고, 또 당신의 말씀에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에 감탄하시며 그 종이 낫게 해주셨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요청드릴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종종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백인대장이 주님께 요청할 때와 같이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 또 백인대장이 말한 것처럼 주님을 찾아뵙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더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며 기도를 드렸는지 성찰해보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너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주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들려올 것이다.



# 그리스도교의 기동인 열두 사도를 기억하며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먼저 안드레아와 베드로, 제베대오의 아들인 요한, 야고보는 어부였습니다(마태오 4,18-22). 안드레아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주업인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와 나타나엘과 필립보 또한 어부로 일해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두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오(루가 5,27-28)는 로마제국의 정부를 위한 세리(稅吏: 세금을 걷는 일을 맡아보는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직업을 가진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세간의 평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을 통해 재산도 상당히 모았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자신이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자기 몫으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세관장 자캐오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루가 19,1-10)

시몬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혁명당원(고대 로마시대의 유대인 민족주의자 집단으로서, 성경에서는 ‘열심당원’으로 번역하기도 함)이었는데,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혁명당원들은 정치나 부정부적인 일에 관여하면서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몬은 정치인이었거나 혁명가였을 것입니다.

배반자였던 가리옷 사람 유다(루가 6,16)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재정을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도둑이었기에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돈주

머니에서 돈을 “늘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요한 12,6).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복음사가는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증언합니

다.(마태오 10,4; 마르코 3,19; 요한 12,4 참조)

성경은 바르톨로메오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가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사도가 된 바울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사이파 사람이었고, 종교를 가르치거나 정치적인 영역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사도행전 18,1-3)





## 소 식

###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올해는 대교구 여름 수련회를 특별히 새로 지어진 전주 성모 안식 성당과 부속 건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는 예배와 기도, 공동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오는 16일(주일)까지 받습니다.

장소: 전주 성모안식 성당

일정: 7/21(금)-23(일): 신데즈모스, 예비신자 (참가비 6만원)

7/24(월)-27(목): 초등부 (참가비 9만원)

7/28(금)-31(일): 중고등부 (참가비 9만원)

\*참가비에 교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성당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 서울 성당 장마 대비 방수 작업 및 청소

지난 주일(6월 25일), 여름 장마를 대비하여 선교회관 방수 작업과 마당 하수구 청소를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늦도록 수고하신 장년회와 신데즈모스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욕망을 벗어나 자유를 얻다

성인의 가르침

한 은수자가 어느 날 아침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아침을 먹지 않지. 그러니 적어도 9시까지 기다려야겠다.”

9시가 되자, 그는 다시 12시까지 미뤘습니다. 12시가 다가오자 딱딱한 빵 조각을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곧 3시가 될 거야.”

그렇게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는 식사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침부터 배고픔을 불러일으켰던 사탄의 에너지가 더러운 연기처럼 그의 입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욕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그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